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김영희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Effect of Peer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Yeong-Hee Kim
Jinju Health College Nursing Department

요약 본 연구는 2학년 간호학생 대상으로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관련 요인 및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서술적 조사연구였다. 연구대상자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간호학생 총 166명이었으며, 자료는 SAS 9.3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지지는 4.37(±.53)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42(±.65)점, 간호 전문직관은 4.19(±.75)점이었다. 간호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은 전공 만족도($F=15.98, p=.000$), 실습수업 만족도($F=16.94, p=.000$)에서, 자율실습 만족도($F=13.32, p=.000$), 자율실습 참여도($F=6.2,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 전문직관은 동료지지($r=.601,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452, p<.001$)과, 동료지지는 학업적 자기효능감($r=.374, p<.001$)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료지지($\beta=.502, p=.000$)와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264, p=.000$)이었으며 설명력은 41.4%였다.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 전문직관은 상호관련이 있으며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생의 간호 전문직관 향상을 위해 실습교육에서 동료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E-Learning을 통한 동료지지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of second year nursing students to understand the level of peer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identify their relationship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e survey subjects were 166 second-year students who took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ours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AS 9.3 program. The results showed scores as follows: peer support, 4.37 (±.53), academic self-efficacy, 3.42 (±.65), and nursing professionalism, 4.19 (±.75). The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ism showed significant variations in major satisfaction ($F=15.98, p=.000$), satisfaction with the practice classes ($F=16.94, p=.000$), and self-practice satisfaction ($F=13.32, p=.000$), and participation in self-practice ($F=6.2, p=.000$). Nursing professionalism was correlated with peer support ($r=.601, p<.001$) and academic self-efficacy ($r=.452, p<.001$), and peer support was correlated with academic self-efficacy ($r=.374, p<.001$). Peer support ($\beta=.502, p=.000$) and academic self-efficacy ($\beta=.264, p=.000$) affected nursing professionalism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1.4%. Peer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interrelated and affected each o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 peer support learning education program using e-learning that can promote peer support and academic self-efficacy and thus enhance the positiv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Fundamental Nursing, Peer Support Learning, Practice Education, Nursing Skill, Nursing Students

본 논문은 2022년도 진주보건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eong-Hee Kim(Jinju Health College)

email: gyumdung20@naver.com

Received March 18, 2022

Revised April 28, 2022

Accepted June 3, 2022

Published June 30,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실무 기반 직업인 간호학은 교과과정에 실습교육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를 위해 간호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은 유능한 실무자로서의 진입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1]. 간호 실무에 필요한 제반 간호 기술을 교육하는 기본간호학실습교육은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어야 하고 [2] 학생 상호간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학습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3] 실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기본간호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4]. 이러한 간호학 실무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5], 이는 전문직 가치를 토대로 양질의 간호를 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5, 6].

간호직업에 대한 전문직관은 간호대학 시기에 형성되어 [7] 간호사로서의 직업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작용하므로 [5] 학부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6].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실습교육이 필요한데 [7], 이는 학생들의 잠재적인 재능을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유능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태도를 습득해야 하는데 [8]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이 간호직업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7]. 이는 대학생 시기의 올바른 간호 전문직관 정립이 향후 간호사로서의 직업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실습교육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호사이미지, 임상실습 교육환경 및 전공만족도 등이며 간호 전문직관은 실무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였다 [9, 10]. 그러나 실무경험 및 임상실습을 위해 2학년에서 필수 교과목인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을 통한 간호 전문직관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또한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을 위해 상호동료 교수학습법, 동영상 촬영을 통한 자기성찰 실습, 또래 학습법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상호동료 교수학습법을 위해서는 동료 교수자 훈련을 위한 시간 소모 및 동료교수자의 학습 부담감 가중 [11] 및,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실습 만족도 저하 [12], 또래학습은 또래가 선호하는 학습스타일을 파악해야 효과적인 것으로 대두되었다 [13]. 이에 비해 동료지지는 처음 실습 기술을 배울 때 유용하여 [14], 자신의 부족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동

료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실습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15]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고 필요한 기술을 숙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16]. 이러한 실습교육환경 조성은 학습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간호업무 성과의 초석이 되어서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17].

동료지지는 교육모델의 하나로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학습에 도움이 된다 [14]. 이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 간의 지지는 서로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제언 [18] 및 상호학습을 촉진하고 [15] 태도와 기술을 습득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9]. 또한 동료지지는 학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전략으로서 학습에 대한 성취도를 증가시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0].

자기효능감은 강의실에서의 교육방식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동료의 수행을 관찰하거나 지지를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1]. 이는 교실환경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며 [20] 학업에 대한 숙달경험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22]. 또한 간호기술이 향상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므로 실습의 성과를 예측하는 지표로 전문적인 간호 실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23].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습 수행 과정에 중점을 두어 배움을 갖도록 능력을 개발해주어야 한다 [24]. 이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실습교육과정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참여시키는 학습촉진의 주요 변인이기도 하면서 [20] 동료지지를 통한 눈높이 학습의 긍정적인 경험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 형성으로 기본간호학실습교육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생 대상의 기본간호학실습교육에서의 동료지지와 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주요 촉진 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 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 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호 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 전문직관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호 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2학년 전공필수 교과목인 기본간호학실습을 수강하는 학생 대상으로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 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간호학부 2학년 재학생을 임의 표출하였다. 표본 수 산출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검증한 선행 연구[25]에서 제시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이었음을 고려하여, G-Power3.1.9.7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중간효과크기(0.15), 검정력(1- β) 0.95, 예측변수 8개를 가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160명으로 산정되었다. 탈락율 20% 이상을 고려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34부를 제외한 총 166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의 표본크기는 적절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동료지지 20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28문항 및 간호 전문직관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동료지지

동료지지는 Cutrona & Russel(1987)이 개발한 도구를 Yu와 Cho(2018)[26]가 사용한 도구로 20문항 5개의 하위요인인 애착(4문항), 사회적 소속(4문항), 돌봄의 기회(4문항), 신뢰로운 동맹(4문항), 조연(4문항)으로 구성

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Yu와 Cho(2018)[26]의 연구에서 신뢰도 Chro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2001)이 개발한 도구를 KIm과 Choi(2021)[27]가 사용한 도구로 28문항 3개의 하위요인인 자신감(8문항),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Choi(2021)[27]의 연구에서 신뢰도 Chrobach's α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3 간호 전문직관

간호 전문직관은 Yeun, Kwon과 Ahn(2005)[28]이 개발한 도구를 Ko(2019)[25]가 사용한 도구로 18문항 5개의 하위요인인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실무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un등의 연구[28]에서 신뢰도 Chrobach's α 는 .73~.93, Ko의 연구[25]에서 Chro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12월 10일 까지이며, 연구 취약 대상자인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 시작 전에 연구자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인간대상 연구 윤리교육을 이수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 및 거부 권리를 설명하였다. 대상자들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서면동의를 한 대상자에 한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연구결과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였고 완성된 설문지는 회수용 봉투에 밀봉하여 회수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보조원에 의해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코딩한 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3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호 전문직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별 간호 전문직관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로, 사후검정은 Scheffe test 로 분석하였다.

넷째,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호 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stepwise method 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제 특성별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 전문직관 차이 검정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81.9%), 입학전형은 수시전형(88.6%), 간호학부 선택 동기는 취업(44.6%), 졸업 후 진로는 병원(79.5%)순이었다. 간호학전공만족도는 보통(42.8%), 기본간호학실습 수업만족도는 만족(39.2%), 자율실습 만족도는 보통(41.0%), 자율실습 참여도는 보통(47.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 전문직관은 간호학 전공 만족도($F=15.98, p=.000$), 기본간호학실습 수업만족도($F=16.94, p=.000$), 자율실습 만족도($F=13.32, p=.000$), 자율실습 참여도($F=6.2,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 검

Table 1.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6)

Variables	Categorie	n(%)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F(p)Scheffe
Gender	Female	136(81.9)	4.19±.61	1.57 (.120)
	Male	30(18.1)	3.99±.68	
Admission Selection	Early admission	147(88.6)	4.17±.64	1.1 (.270)
	Regular admission	19(11.4)	4.01±.53	
Entering Motivation	Aptitude	35(21.1)	4.23±.56	0.77 (.572)
	Employment	74(44.6)	4.08±.66	
	Recommendation	23(13.9)	4.11±.67	
	Longing	25(15.1)	4.32±.53	
	School grade	6(3.6)	4.25±.73	
Desired Work	Volunteer	3(1.8)	4.00±.87	1.3 (.271)
	Hospital nurse	132(79.6)	4.17±.62	
	Healthcare teacher	3(1.8)	4.26±.45	
	Public official	20(12.0)	3.92±.70	
	Entered graduate etc.	10(6.0)	4.83±.00	
Nursing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10(6.0)	2.83±.00	15.98 (.000)
	Dissatisfaction	10(6.0)	3.66±.68	
	Moderate	71(42.8)	3.88±.60	
	Satisfaction	68(41.0)	4.43±.47	
Practice class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16(9.6)	4.63±.39	16.94 (.000) a<ab, bc<c
	Dissatisfaction ^a	5(3.0)	3.68±.93	
	Moderate ^{ab}	64(38.6)	3.83±.59	
	Satisfaction ^{bc}	65(39.2)	4.29±.53	
Self practic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c	32(19.3)	4.60±.44	13.32 (.000)
	Dissatisfaction	10(6.0)	3.83±.60	
	Moderate	68(41.0)	3.89±.61	
	Satisfaction	55(33.1)	4.28±.57	
Satisfaction Participation	Very satisfaction	33(19.9)	4.59±.47	6.2 (.000) a<ab, bc<c
	Very passive ^a	8(4.8)	3.51±.51	
	Passive ^{ab}	28(16.9)	3.91±.61	
	Moderate ^{bc}	70(42.2)	4.17±.59	
	Active ^{bc}	34(20.5)	4.20±.61	
Very active ^c	26(15.7)	4.53±.56		

* p<.05, **Scheffe test: Means with th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정한 결과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 군이 만족한 군, 보통인 군, 불만족인 군 보다는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실습 참여도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군이 적극적인 군, 보통 군, 수동적인 군, 매우 수동적인 군 보다는 간호 전문직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 전문직관 차이

기본간호학실습교육에서의 동료지지는 전체 평균평점 4.37(±.53)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체 3.42(±.65) 점, 간호 전문직관은 전체 4.19(±.7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Mean Score for Peer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66)

Variables	Categories	M±SD.
Peer Support	Attachment	4.38±.60
	Social belonging	4.31±.58
	Opportunity to care	4.26±.60
	Trusted ally	4.48±.52
	Advice	4.44±.57
	All	4.37±.53
Academic Self-Efficacy	Confidence	3.24±.84
	Task hardness preference	3.68±.67
	Self-control efficacy	3.33±.87
	All	3.42±.65
Nursing Professionalism	Self concept	4.26±.69
	Social awareness	3.88±.88
	Nursing professionalism	4.16±.74
	Nursing practical roles	4.22±.75
	Nursing independence	4.45±.73
	All	4.19±.75

3.3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 전문직관 간의 관계

간호 전문직관은 동료지지($r=.601, p<.001$)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452,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료지지는 학업적 자기효능감($r=.374,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for Peer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66)

Variables	Peer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r (p)		
Peer Support	1		
Academic Self-efficacy	.374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601 (<.001)	.452 (<.001)	1

3.4 동료지지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위한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검정하였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검정한 오차의 자기상관은 2로 가까이 나타나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공차 한계값은 .64~.95에, 분산팽창인자 값은 1.55에 분포되어 있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59.20,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1.4%였다. 분석결과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료지지($\beta=.502, p=.000$),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264, p=.00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N=166)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702	.321	.361	2.187	.030
Peer Support	.590	.075	.502	7.813	.000
Academic Self-efficacy	.255	.062	.264	4.103	.000
Adjusted R ² =.414, F=59.20, p<.001					

4. 고찰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교육에서의 간호대학생의 동료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관계 및 간호 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2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4.1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학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08점[25]과 3.91점[29], 졸업학년 대상의 3.43점[10], 2~4학년 대상의 3.76점[9], 1학년 대상의 3.71점[30]보다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지지가 실습실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기능적인 기술 습득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 전문직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하위영역 중 간호의 독자성은 4.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Ham의 연구 4.30점[10]과도 일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동료에게 학문적 도움을 구하고 학문적 숙달에 높은 가치를 두면서 이를 공유하는 동료와 함께 하면서 간호의 독자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간호 전문직관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인식은 3.88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는 Whang과 Shin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인식이 3.5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29], 졸업학년 대상의 연구에서도 2.85점[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화 요인의 영향을 받고 개인의 신념이 근간이 되어 전문직관을 형성하게 되는데[10], 본 연구기간인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의 병행으로 인한 전공수업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 전문직관은 교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어 긍정적으로 변화하므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 중 간호 전문직관은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만족도가 높고 자율실습 참여도가 적극적일수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10]의 연구에서는 종교, Whang과 Shin의 연구[29]에서는 졸업 후 진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간호 전문직관을 연구한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기는 하지만 동료를 통한 동료촉진이 실습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원동력과 만족감을 증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동료지지 점수가 5점 만점에 4.37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학년 학생의 기술 숙달 능력은 실습을 하면서 증가되므로[30]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 성공적인 학업 경험을 갖도록 해서 전문직관을 더욱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호 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직접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어서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 전문직관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고[25], 전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와 자기효능감은 간호 전문직관[10]과,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29]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간호 전문직관[30]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새로운 학습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12] 본 연구대상자들도 본인이 동료의 지지자로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의과대학생 1학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실습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도 학습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수업참여와 자기효능감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21]. 또한 자기효능감은 교육자에 의해서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므로[21] 수업참여를 장려하고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것은 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의대생 279명 대상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도 또래관계의 질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0].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지식과 기술의 증가에 의해 향상되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경험 축적 및 내외부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단기성 연구만으로는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에는 간호 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 다양한 교육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적 정체성은 간호대학시기에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8] 학습 환경을 잘 구조화해서 간호 술기를 습득하도록 하고 동료와 교수 상호간에 역동적으로 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융복합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교육을 통해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동료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료지지로 나타났다.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간호교육에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간호 기술 훈련교육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5]. 본 연구에서의 기본간호학실습교육방법은 상호간에 실습하는 내용을 지지하고 역할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외 연구로 간호학생 120명 대상으로 12시간 동안 맥박측정, 앰플에서 약물준비 및 피하주사에 대한 동료지지를 받은 실험군은 자존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4]. 따라서 동료지지를 통한 학습방법은 실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체방법이며[14], 비용효율적인 고품질의 교수전략이기는 하지만 동료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있어야 하고 역할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31].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5점 만점에 3.42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학년 대상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 3.14점인 연구결과[25], 2학년 대상의 사례기반학습 전 3.01점에서 학습 후 3.23점[27]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 중 과제 난이도 선호가 3.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견주어 보면 이는 동료와의 관계가 소속감과 협동심을 촉진하여 도전적인 학습 환경을 선호하고 학문적 가치를 공유한 것으로[20] 각종 수시평가 및 실기평가에 대비하면서 상호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기본간호학실습시간에 핵심 기술을 연습하고 배우는 것은 실무자로서의 진입을 위한 준비과정이며[1], 다양한 교육 방법의 하나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설명력은 23.8%[30], 셀프리더십 61.6%[9], 간호사 이미지가 52.0%[10],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50.6%[2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보건의로 전문직 중 특히 간호는 학부 교육 중에 간호전문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직 가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거나 동료의 지지가 미흡하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5].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교육환경으로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테헤란 의과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교육환경 중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학업성취와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성과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학습 환경을 잘 조성하여 학업성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료지지를 활용한 기본간호학실습교육 방법은 동료지지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상호 관련이 있고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동료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 동료지지를 활용한 기본간호학실습 교육방법은 동료를 통한 자기성찰 및 학습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므로 획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 실제적인 실습교육 방법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의 능동적인 참여 경험은 간호 업무 수행을 위한 효능감 향상과 동료와 함께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 교육과정은 대인관계 기술과 술기능력의 증진으로 간호 전문직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습교육방법으로 동료지지를 적용한 연구가 없어서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료지지를 통해서 동료의 행동과 간호 술기의 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기성찰을 하게 되므로[17] 간호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었을 것으로 간호 교육적 및 실무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료지지를 통한 실습교육은 필요한 기술을 숙달하는데 도움이 되고[15]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실습교육에서의 동료지지를 통한 도움과 직업 정체성과도 상호 관련이 있어서 직업의 전문성 개발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16]. 이처럼 실습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학습효과인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켜 간호 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실습 간호교육 방법으로는 실습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그룹을 형성하여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도록 도구적 의미로서의 동료그룹 형성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리더십과 멘토링 기술을 동료와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동료 교수학습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 학생으로 한정되어서 타 대학과의 비교분석이 되지 않았다. 또한 2학년 한 학기 적용된 기본간호학실습 교육만으로는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 전문직관 정도 및 영향 요인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해석 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간호학생 대상으로 기본간호학실습교육에서의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 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간호 전문직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조사연구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간호 전문직관은 상호 관련이 있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동료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설명력은 41.4%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간호학실습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동료 상호간에 지지하고 술기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E-러닝을 통한 동료지지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시킨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제반 전략이 설계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L. Aston, A. Molassiotis, "Supervising and Supporting Student Nurses in Clinical Placements: the Peer Support Initiative", *Nurse Education Today*, Vol.23, No.3, pp. 202-210, 2003.
DOI: [https://doi.org/10.1016/S0260-6917\(02\)00215-0](https://doi.org/10.1016/S0260-6917(02)00215-0)
- [2] R. Sheikhaboumasoudi, M. Bagheri, S. A. Hosseini, E. Ashouri, N. Elahi, "Improving Nursing Students' Learning Outcomes in Fundamentals of Nursing Course through Combination of Traditional and E-Learning Methods", *Iranian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Research*, Vol.23, No.3, pp. 217-221, 2018.
DOI: https://doi.org/10.4103/ijnmr.IJNMR_79_17
- [3] T. J. Bugaj, C. Nikendei, "Practical Clinical Training in Skills Labs: Theory and Practice", *GMS Journal for Medical Education*, Vol.33, No.4, 2016.
DOI: <https://doi.org/10.3205/zma001062>
- [4] E. W. Carte, L. S. Cushing, N. M. Clark, C. H. Kennedy, "Effects of Peer Support Interventions on Students' Access to the General Curriculum and Social Interactions", *Research &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Vol.30, No.1, pp. 15-25, 2005.
DOI: <https://doi.org/10.2511/rpsd.30.1.15>
- [5] B. Poorchangizi, F. Borhani, A. Abbaszadeh, M. Mirzaee, J. Farokhzadian, "Professional Value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MC Medical Education*, Vol.19, 2019.
DOI: <https://doi.org/10.1186/s12909-019-1878-2>
- [6] P. Bimray, K. Jooste, H. Julie, "Professionalism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Learner Nurses during their 4-Year Training Programme at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n the Western Cape, South Africa", *Curationis*, Vol.42, No.1, pp.2030, 2019.
DOI: <https://doi.org/10.4102/curationis.v42i1.2030>
- [7] Y. Chen, Y. Zhang, R. Jin, "Professional Identity of Male Nursing Students in 3-Year Colleges and Junior Male Nurses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Vol.14, No.4, 2020.
DOI: <https://doi.org/10.1177/1557988320936583>
- [8] J. M. Nouri, A. Ebadi, F. Alhaniani, N. Rejeh, "Growing up and Role Modeling: a Theory in Iranian Nursing Students' Education",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Vol.7, No.2, pp.273-283, 2015.
DOI: <https://doi.org/10.5539/gjhs.v7n2p273>
- [9] K. S. Jung, E. J. Oh,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 Image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Vol.22, No.10, pp. 66-75,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0.66>
- [10] Y. S. Ha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p.7-8, 2011.
- [11] H. S. Koo,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 of Self-Directed Practice based Peer-Tutoring on Performance, Confidence and Self-Efficacy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12, pp.453-463, 201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12.453>
- [12] A. K. Kim, R. W. Kim, "Effects of Self Reflective Practice using Cellular Phone Video Recordings on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Practice Satisfaction, Learning Self-Efficacy and Core Basic Nursing Skills Achieve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11, pp.665-678,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11.665>
- [13] H. A. Alharbi, A. F. Almutairi, E. M. Alhelih, A. S. Alshehry, "The Learning Preferences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King Saud University in Saudi Arabia: A Cross-Sectional Survey",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Vol. 2017, 2017.
DOI: <https://doi.org/10.1155/2017/3090387>
- [14] H. Aslan, B. Erci, "The Impact of Peer Support Provided to the First-Year Students of Nursing on the Clinical Stress and Psychomotor Nursing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14, pp.68-78, 2021.
- [15] N. Campbell, H. Wozniak, R. L. Philip, R. A. Damarel, "Peers-supported Faculty Development and Workplace Teaching: an Integrative Review", *Medical Education*, Vol.53, No.10, pp.978-988, 2019.
DOI: <https://doi.org/10.1111/medu.13896>
- [16] X. Chen, J. Zhong, M. Luo, M. Lu, "Academic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Professional Identity among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1, pp.374, 2020.
DOI: <https://doi.org/10.3389/fpsyg.2020.00374>
- [17] A. Tiyyuri, B. Saberi, M. Miri, E. Shahrestanaki, B.B. Bayat, H. Salehiniya, "Research Self-Efficacy and its Relationship with Academic Performance in Postgraduate Students of Tehr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in 2016", *Journal of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Vol.7, 2018.
DOI: https://doi.org/10.4103/iejhp.iejhp_43_17
- [18] C.L. Denis, "Peer support within a health care context :a concep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0, No.3, pp.321-332, 2003.
DOI: [https://doi.org/10.1016/S0020-7489\(02\)00092-5](https://doi.org/10.1016/S0020-7489(02)00092-5)
- [19] A. Rimpela, J. M. Kinunen, P. Lindfors, V. E. Soto, K. S. Aro, "Academic Well-Being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eer Networks in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7, No.8, pp. 2848, 2020.
DOI: <https://doi.org/10.3390/ijerph17082848>
- [20] A. A. Hayat, K. Shateri, M. Amini, N. Shokrpour,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related Emotions, and Metacognitive

- Learning Strategies with Academic Performance in Medical Stud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BMC Medical Education*, Vol.20, No.76, 2020.
DOI: <https://doi.org/10.1186/s12909-020-01995-9>
- [21] K. M. Stegers-Jager, J. Cohen—Schotanus, A.P. Themmen, “Motivation, Learning Strategies, Participation and Medical School Performance”, *Medical Education*, Vol.46, pp.678-688, 2012.
DOI: <https://doi.org/10.1111/j.1365-2923.2012.04284.x>
- [22] S. Hood, N. Barrickman, N. Djerdjian, M. Farr, R. J. Gerrits, “Some Believe, Not All Achieve: The Role of Active Learning Practices in Anxiety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icrobiology & Biology Education*, Vol.21, No.1, 2020.
DOI: <https://doi.org/10.1128/jmbe.v21i1.2075>
- [23] K. R. Livsey, “Clinical Faculty Influences on Student Caring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Caring*, Vol.13, 2009.
DOI: <https://doi.org/10.20467/1091-5710.13.2.52>
- [24] C. Hataway,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Early Academic Success of Under represented Minority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the First Semester of a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pp.29-33, 2016.
- [25] M. S. Ko,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14, No.2, pp.85-92, 2019.
DOI: <https://doi.org/10.15715/kihcom.2019.14.2.85>
- [26] J. H. Yu, J. H. Cho, “Influencing of Coworker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of Nurs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3, pp. 733-743. 2018.
DOI: <http://doi.org/10.35873/ajmahs.2018.8.3.069>
- [27] J. S. Kim, H. J. Choi, “The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9, Issue 1, pp. 141-150. 2021.
DOI: <https://doi.org/10.15268/ksim.2021.9.1.141>
- [28]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 6, pp.1091-1100, 2005.
- [29] E. H. Whang, S. J. Shin,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1, pp.97-108, 2017.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7.31.1.97>
- [30] J. H. Kwon, B. S. Choi,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For First Grade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5, pp.297-304,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5.297>
- [31] E. Davis, S. Richardson, “How Peer Facilitation can Help Nursing Students Develop their Skills”, *British Journal of Nursing*, Vol.26, No.21, pp.1187-1191, 2017.
DOI: <https://doi.org/10.12968/bjon.2017.26.21.1187>

김 영 희(Yeong-Hee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내실습 및 핵심기본간호술